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모든 말일성도는 하나님께서 혼인 외의 모든 성적인 관
계를 금해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죄라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28; 교리와 성약 42:23; 63:16
참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창조주께서 자
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간을 존속시키고 또 그분
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정하신 가족 형성에서 남편과 아내
를 함께 묶기 위해 가르쳐 오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창조의
힘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가
르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성적인 결합은 합법적이며, 만일 그것이
정당한 의도로 행해진다면 영예롭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
지만 혼인 외의 성적 탐닉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
입니다.”

어떤 말일성도들은 동성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심지어 그러한 행위로 이끌 수 있는 성적인 감정을 갖게
됨으로써 혼란과 고통에 직면합니다. 그러한 행동이나 느낌
을 수반하는 종교적인 도전과 정서적인 도전 및 가족 생활
의 도전에 직면할 때, 교회 지도자들과 부모들과 교회의 회
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거나, 그들에 대해 성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느낀다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존속시키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정하신 가족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를 단결시키기 위해
가르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림: 에드워드 맥스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동성 연애자로서 과학적인 증거가 그것을 입증한다거나 그것이 선천적이라고 주장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와는 다른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에게 성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며, 그러한 자연스러운 어떠한 성적인 행위도 죄라고 주장하는 우리를 편협하며 무자비하다고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복음 교리

.....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복음 교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교리와 성약 20:18; 모세서 2:27; 창세기 1:27)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2. 인생의 목적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늘 부모와 같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3. 헤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백”[교리와 성약 93:38]하게 되었으며 그 상태로 남을 수 있음) 가능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그것에 충실한 남자와 여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1:1~4, 132)

4.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계획을 통하여, 올바른 일을 하려고 소망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생에서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이 맺은 침례 성약과 기타 다른 성약들에 충실하다면 다음 세상

에서 영생을 얻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³

5.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선(생명의 길)과 악(영적인 사망과 멸망의 길 [니파이서 2:27; 모세서 4:3 참조])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인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이 생의 여건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어떤 선택권에 대한 우리의 기동력이나 행할 힘을 제한하는 등의 일),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나 상황(모로나이서 8:5~12; 교리와 성약 68:27, 101:78 참조)에 이르게 되면 어떤 육적 또는 영적인 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6.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대되는 것을 통해서 시험 받는 것은 인생의 목적 중 한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니파이서 2:11; 아브라함서 3:25~26 참조) 그러한 상대되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우리가 자유의지와 자유를 사용하여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7. 사탄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니파이서 2:27)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방해가 될 그런 선택과 행동을 부추기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책임의 원리를 붕괴시키고, 우리의 거룩한 창조의 힘을 오용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며, 합당하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남성이나 여성의 의미를 혼란시키고자 노력합니다.

8. 이 모든 일에서, 육신이 없는 악마는 사람들이 “육의 뜻을 좇아 영원한 죽음을 택”하고 “[자신]의 영을 뺏쳐 속박의 권세를 꺾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려 악마의 왕국에서 [그들을] 다스리”(니파이서 2:29)기 위해 그들의 육신을 더럽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신도신문

우리는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거나 에이즈(AIDS)에 걸린 사람들(성관계를 통해 병을 얻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을 포함하여 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9. 대관장단은 “[1] 부도덕한 생각 및 감정을 갖는 것과 [2] 직접 부도덕한 이성 관계나 어떠한 동성애적 관계를 갖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부도덕한 생각은 부도덕한 행위보다 덜 심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를 정죄하리”(엘마서 12:14)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도 억제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부도덕한 생각(과 그러한 것으로 이끄는 덜 심각한 감정들)은 죄가 되는 행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0.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조차도 (또는 거의 대부분의 죄인들은) 적당한 왕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⁵ 선하게 살고 대부분의 구원의 의식을 받았으나 영원한 결혼을 통해 승영의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해의 왕국에서 더 낮은 처소에 구원 받게 되며 영원한 증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11. 삶의 고난과 선택 속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5:12, 17)는 구세주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대관장단에서도 최근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욱 친절하고 더욱 상냥하며 더욱 용서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화는 더욱 더디 내고 도움은 더욱 빨리 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정의 손길을 더욱 넓게 펼치고 보복의 손길을 삼가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⁶

친절과 연민과 사랑은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이 짊어지게 된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또 옳다고 아는 것을 행하도록 강화 시켜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교리와 책임의 적용

이러한 교리와 계명과 책임들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교리는 동성애 행위에 참여한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을 가하는 소위 “동성 연애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명백히 비난합니다.

우리는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거나 에이즈(AIDS)에 걸린 사람들(성관계를 통해 병을 얻은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을 포함하여 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대해 동정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동성 연애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관장단이 구분하신 대로, 우리는 (1)(억제하고 바꾸어야 하는) 동성 연애적인 “생각 및 느낌”들과 (2)(심각한 죄인) “동성 연애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동성 연애, 레즈비언, 게이라는 단어들은 특정한 생각이나 느낌 또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낱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상태나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교리는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는 사람이 성 행위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관해 아무런 선택권도 갖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정은 선천적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이 세상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또 어떤 감정은 “본성과 교육”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감정들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교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런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적절한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죄가 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또 유년기나 성인 시절에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압력에 대해 서로 다른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감수성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

도, 우선 순위, 행위 및 우리가 만든 “생활 양식”은 선택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교리적인 입장의 본질은 자유와 자유의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사로 주신 자유의지는 외적인 힘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짊어진 책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자유의지 사이의 차이점은 감정에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 탐닉으로 진행한다라는 가설과 관련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은 도박, 흡연, 음주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이나 반응 또는 탐닉에 대해 유별나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러한 감정들은 선천적이거나 또는 사도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고린도후서 12:7)라고 했던, 밝혀지지 않은 만성병처럼 개인적인 선택이나 잘못 없이 얻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감정이 끌려, 단지 장난삼아 해보는 사람과는 달리 상습적인 도박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좋아해서 흡연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특별한 매력을 느껴서 쉽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예로는 급한 성미, 호전적인 태도, 탐욕스러운 자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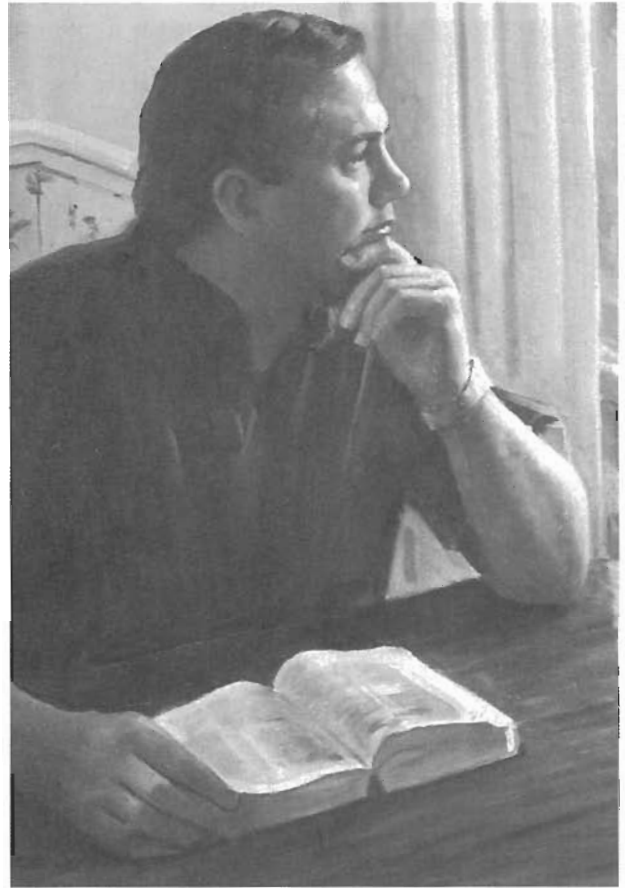
각각의 경우(그리고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예)에서 어떤 행동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감정이나 기타 다른 특성들은 유전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러한 관계는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유전적인 요소는 개개인이 성장기 동안 특정한 영향을 받으면 어떤 감정을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생의 다양한 자유(이 생에서 오

직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니파이이사 2:27])를 나타내는 우리의 감수성이나 약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과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말씀할 때 이 차이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태어납니다. [또는 성장합니다.] 어떤 것들은 잘 보이지만, 또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특별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민감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통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라고 강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변명을 대신할 수는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약점이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니파이이사 2:2 참조) 선천적인(또는 후천적인) 어떠한 약점이든지 그것을 극복하는 데 들인 노력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빼내 주시기를 세 번 간구하였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



신
원
의
말

이 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닌 자유의 범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과 행동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을 안겨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9~10)

“우리의 감수성이나 경향[감정]이 어떻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금해진 일을 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것의 영원한 결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경향은 중독되지 않고 마시겠다는 희생자의 자유를 구속하지만, 그의 자유의지는 그가 술을 끊음으로써 알코올에 의한 신체적인 쇠약과 중독에 의한 영적인 퇴보에서 벗어나게 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에 대해 강한 본능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힘이 없으며,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하는 주장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전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생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가 저세에서 도전을 통해 얻으려고 노력했던 결과입니다. 자신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천국 전쟁의 결과를 무시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노력은 사탄의 선전 노력의 일부가 됩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법률과 하나님의 율법 모두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문명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책임을 안겨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충동을 억제할 책임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 법칙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방아쇠를 당기려는 충동에 굴복한 성미 급한 사람이나, 훔치려는 충동에 굴복한 탐욕스런 사람이나, 어린이에 대한 강한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려는 감정에 굴복한 소아성애자들의 죄를 변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가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닌 자유의 범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과 행동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을 안겨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고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문제를 오로지 현재의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합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 문헌을 참조하고 자격을 갖춘 과학자와 의사의 조언을 통해서, 동성 연애자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과학적인 발견들이 증명해 준다는 몇 가지 주장을 논박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신체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질이 신체적인 많은 특성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부모와 형제지간 같은 사회 심리학적 요인(특히 성격 형성기 동안)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행동이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쟁은 수세기 동안 있어 왔습니다. 동성에 감정과 행위에 대한 그같은 논쟁은, 이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 중 하나가 드러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행동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⁸ 또 어떤 과학자들은 “성적인 본능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고 제창하는 이론이나 증거를 옹호합니다.⁹

물론 유전질을 통해 암과 같은 특정한 질병과 진성 당뇨병 같은 다른 병들에 대한 민감성을 알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유전질은 공격성, 알코올 중독, 비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결정짓는 한 가지 요소가 된다는 확실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질이 성적인 본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옹호론이 인정하는 것처럼, “본질적인 유전 가능성의 개념을 필연적인 유전 가능성의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되며... 아마 대부분의 심리 과정은 타고난 성격과 환경적인 사건 사이의 상호 작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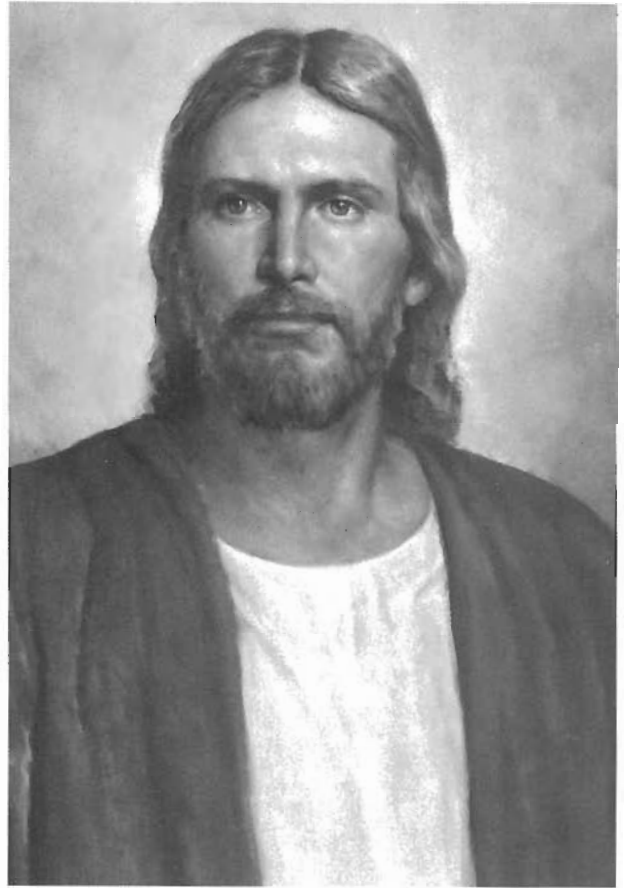
과학자들이 성적인 본능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을 완전히 용인하거나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든지간에, 그들 대부분은 현재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자신을 “게이”라고 한 일란성 남자 쌍

생아 56쌍에 대한 어느 연구는 그 중 52퍼센트의 다른 쌍둥이들이 똑같이 자신을 게이라고 했다고 전해 줍니다.¹¹ 일란성 여자 쌍생아에 대한 유사한 연구에서도 동성 연애자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71쌍 중 34쌍으로 48퍼센트)¹² 이러한 연구가 남성이나 여성이 자신을 동성 연애자로 분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간에 그렇게 되는 데에는 어떤 영향력이 선천적으로 미치는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해도, 이러한 영향력이 결정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한 저명한 과학자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은 부모에게서 양육되었다 할지라도 한 쪽이 동성 연애자인 일란성 쌍생아가 이성 연애자가 될 확률은 50퍼센트나 그 이상입니다.”¹³ 또한 우리는 이러한 연구(그리고 아래에 설명될 다른 연구들)의 결과가 질문 받는 사람의 자가 분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써 “그 기원에 관한 여론은 말할 것도 없고 임상학과 행동학자 사이에서도 동성 연애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흔들리는 과학적인 결론의 토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¹⁴

새로운 연구 영역에서는 새로운 증거 자료가 아주 반가운 것입니다. 1993년 7월에 딘 해머 박사의 “남성 동성 연애자와 18세 이상의 그 친척들로 선별된 그룹의 염색체 엑스큐28(Xq28) 부분 상의 유전 표식 유전[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디옥시리보핵산(DNA) 조각]과 성적인 본능 사이에 통계적으로 중요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발표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엑스큐28에 남성들의 동성 연애적 본능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¹⁵ 해머 박사는 자신의 발견에 가장 정확한 해석을 달아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일반 남성들의 엑스큐28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단지 경험에서 나온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높은 수준에서 볼 때, 그 부분은 높게 분다고 해도 동성에 남성의 67퍼센트 이상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 비율도 엄격히 선별된 동성 연애자 형제들 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더 낮



신앙의 빛

복음의 첫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우리를 신성한 운명으로 이끌어 줄 행동을 선택하도록 빛과 힘을 주십니다.

게 봐서, 많은 동성 연애적인 성향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상호 작용하는 많은 유전자 수에 의해 형성된다면 엑스큐28은 어느 정도 남성의 성적인 태도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계 자료 및 입수할 수 있는 쌍둥이와 가족 연구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중간 수준에서 보면, 엑스큐28이 동성 연애 남성 가운데 5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까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로 추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연구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¹⁶

자가 분류한 “동성 연애” 남성에 대해 “5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까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학이 “동성 연애”가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는 주장을 정당화 시키기엔 아주 부족합니다. 한 저명한 과학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불확실한 점을 밝혔습니다.

“동성 연애 성향 아래에 있는 선천적인 생물학적 특성들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증거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 연애가 유전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는 유전자 연구의 증거들을 보면 무엇이 유전되고 그것이

성적인 본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¹⁷

콜럼비아 대학교 정신 의학과 바인 박사와 파슨즈 박사는 인간의 성적 본능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을 재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고와 제언을 했습니다.

“임상의와 행동학자들은 성적 본능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사회 심리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는 주장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성적인 본능의 기원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을 보면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관한 내용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나 호르몬이 성적 본능을 특징짓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것들은 개인적인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와 호르몬은 성적 본능과 기타 다른 개별적인 특성이 발현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과 그 개인의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¹⁸

과학자들의 많은 제언 중 하나에 불과한 이 소견은 특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멸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참된 원리로 여기는 중요한 개인적 선택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원과 회원의 책임

1991년 11월 14일, 대관장단은 순결의 법의 중요성에 관한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성관계는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적절하게 표현될 때만 정당합니다. 사통, 간음 및 동성 연애 행위를 포함한 다른 어떤 성적 접촉도 죄입니다.”

그러한 방향에 따라 교회 역원들은 범법자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예언자 사무엘이 사악한 니파이인들에게 가르쳤던 다음의 원리를 상기시켜 줄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가 평생을 두고 얻지 못할 것을 구하였음으로, 우리의 위대하고 영

원한 머리가 되시는 이의 뜻을 거스려 간악함을 행하며 행복을 구하였음이라.” (히라맨서 13:38)

계속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교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조장되는 것에 대해서 징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교회의 징계가 없지만 (그것들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격려는 있을지라도)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종들에게 “아무도 함당하지 않게 나의 살과 피를 취하지 못하게 하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함당치 않은 자가 있거든 저를 금하”(니파이삼서 18:28~30)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또한 “그러나 만일 저가 회개하지 않거든 저를 나의 백성으로 헤아려 나의 백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31절; 모사이야서 26:36; 엘마서 5:56~61 참조)고 명하셨습니다. 필연적으로 범법자가 회개하라는 외침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회 회원을 돌보는 목자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징계 처분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가 되는 행동과 부적절한 생각이나 위험성이 내포된 감수성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1991년 11월 14일의 서한에서 대관장단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관장단은 “사통, 간음 및 동성 연애 행위”의 죄스러운 본질을 재확인하신 후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원하는 개인과 그 가족들은 감독이나 지부장 또는 스테이크 부장이나 지방부장으로 부터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해의 손길을 뻗치도록 격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는 권유를 받고 구세주의 속죄와 치유의 권세를 적용하면서 그리스도다운 사랑과 영감 받은 권고에 응할 것입니다.” (이사야 53:4~5:



그림: 신

인생의 목적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하늘 부모와 같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사이야서 4:2~3 참조)

이와 비슷하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똑같은 주제에 대해 한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죄가 있건 없건 죄의 쓰디쓴 결과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는 꾸짖었지만 죄인은 사랑하신 주님의 모범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친절과 위로로 고난 당하는 자를 찾아 나서야 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¹⁹

그러한 권유와 확인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회 회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관해 계속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 역원 중 한 명이 텔레비전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동성 연애를 증오하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 다. 저도 9년 전에 이 주제에 대해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던 중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은 불량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증오한다는, 이러한 것이 교회가 견지하는 태도”라고 가르치거나 암시한다는 소문에 관해 질문을 받았습니 다.

보다 의미 심장하게, 우리는 충실한 회원들로부터도 그러한 질문들을 받습니 다. 최근에 받은 한 편지도 그 실례입니다.

“우리가 가진 또 다른 걱정거리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상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되는 점입니다. 아마 어떤 점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청남 청녀들은 오로지 끝까지 남아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그들의 가족과 교회 가까이 에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 연사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말씀들을 할 때 그것은 특히 더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들을 더욱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엄청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갖게 하며 자신의 가치를 부족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그러한 감정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괴로운 체험을 하는 그들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때때로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조

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벌어지는 자살이나 분열을 막는 데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회원들이 그들을 '사악한 사람들'로 판단하는 사실을 쉽게 참을 수 없으므로 동성 연애의 생활 양식에서 위안을 찾습니다.”²⁰

이러한 편지들은 온갖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과 좀더 나은 대화를 할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밖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도움과 이해의 손길을 펼쳐야 할 분명한 교리적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죄인은 부적절한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쫓겨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니파이삼서 18:22~23, 30, 32 참조)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올바른 원리와 의로운 행동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모든 주제에 대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교회 지도자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동성 연애적 감수성이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려움의 정도와 행동을 삼가고 생각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겠지만, 교회에서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와 우정 증진의 손길은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사람들이 아무튼 불량”하다고 가르쳤음을 시사했던 텔레비전 기자에게 대답할 때, 그 중대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불량하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아주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충분히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느껴야 하는데, 그분은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에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선례가 되는) 간음한 여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여 주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그 죄는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²¹

동성에게 매력을 느낌으로써 곤란을 겪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유혹과 또 다른 많은 종류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죄에 대항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움은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회복된 복음의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는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복음의 중심되는 진리는 우리 구세주의 속죄와 부활이며 우리가 불사 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이루기 위해 영원한 결혼은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규정된 신성한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목표는 주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례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결혼이 동성 연애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 방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²²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도움은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교회 참석과 예배를 통하여, 영감 받은 지도자의 권고를 통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도움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근원은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문제와 싸우는 사람들(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특별한 사랑과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약을 통해 기꺼이 “남의 짐을 나누어” (모사이야서 18:8)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갈라디아서 6:2)겠다는 마음을 나타내었던 교회 회원들의 분명한 책입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우리를 신성한 운명으로 이끌어 줄 행동을 선택하도록 빛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결론

.....

과학적인 증거와 종교적인 교리의 서로 다른 시각은 자동차에 있어 그 작동을 관찰하고 여러 부분을 해체하며 분해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연구하는 것과, 제조업자가 쓴 운전자 교재를 읽음으로써 연구하는 것의 차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관찰과 분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기계의 기능과 가능성에 대해 단지 부분적인 지식만 얻게 될 것입니다. 기계의 조작과 가능성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지식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쓴 교재를 공부함으로써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영혼에 대한 운전자 교재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분의 예언자가 해석한 경전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지식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거룩한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계발해야 할 행동과 생각에 관한 지

식의 가장 훌륭한 근원입니다.

이 생의 문제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니파이의 시에 공감할 것입니다. “오 나는 불쌍한 인간이로다. 나의 육신이 나를 슬프게 하며, 나의 죄가 나를 비탄케 하는도다.

“이는 나를 쉽사리 뒤엎어 버리는 유혹과 죄 가운데 묻혀 있음이라.” (니파이이서 4:17~18)

우리는 죄를 극복할 힘과 의지를 갖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니파이는 그를 지키사 고난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20절 참조) 니파이는 “어찌하여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야 하느뇨?”(27절)라고 물은 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속해 주시고 “죄의 면전에서 몸을 떨게 하여”(31절)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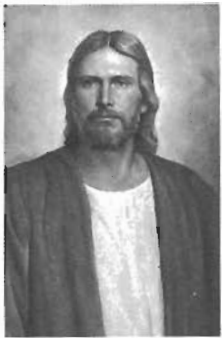
니파이는 이 기사에서 토의된 어려움 가운데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당신께 의지하여 왔으며,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육신의 권세에 저주가 임함을 앞내 내가 육신의 권세를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인간을 의지하거나 육신을 저의 권세로 삼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나이다.

“진정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며” (34~35절)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한 운명을 이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분의 확신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권유에서 나타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니파이삼서 27:27) □

(이 기사에 대한 주해는 25쪽에 있음)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동성에게 매력을 느낌"에 대한 주해
 (14쪽 기사 참조)

1. 복음 교리, 278쪽
2.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2년 3월호, 417쪽에 실린 1912년 1월 31일의 대관장단 말씀 참조: 1922년 8월 24일자 밀레니얼 스타, 539쪽 참조
3. 로렌조 스노우, 밀레니얼 스타, 1899년 8월 31일, 547쪽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 마음이 청결함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88년), 61-62쪽에서 토의됨.
4. 1991년 11월 14일자 대관장단 서한
5. 교리와 성약 76편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 "배도와 회복", 엔사인, 1995년 5월호, 86-87쪽에서 토의됨.
6. "대관장단 부활절 인사", 처치 뉴스, 1995년 4월 15일, 1쪽
7. "자유 의지와 자유", 브리감 영 대학교 1987~88년 영적인 모임 및 노변의 말씀 (프로보: 비와이유 출판부, 1988년), 46~47쪽: 여기에 실린 편집판은 몬트 에스 나이먼과 찰스 디 테이트 2세가 편집한 물문경: 니파이이서의 교리적 구조 (프로보: 비와이유 종교 연구 센터, 1989년) 14~15쪽에 나옴.
8. 알 시 르완틴 외 다수, 유전자 때문이 아닙니다 (뉴욕: 판테온 출판사, 1984년); 알 허바드와 이 왈드, 유전자 신화를 폭로함 (보스톤: 비콘 출판사, 1993년)
9. 알 시 프리드만과 제이 다우니, "신경 생물학과 성적 본능: 현재의 관계", 신경 정신병학 저널 5 (1993년):149
10. 9번과 동일.
11. 제이 엠 베일리와 알 시 필라드, "남성의 성적 본능에 대한 유전자 연구", 일반적인 정신의학에 대한 기록 48 (1991년): 1089~96
12. 제이 엠 베일리와 알 시 필라드 외 다수, "유전 인자는 여성의 성적 본능에 영향을 미침", 일반적인 정신 의학에 대한 기록 50 (1993년):217~223
13. 디 해머와 피 코프랜드, 욕망의 과학 (뉴욕: 시몬 앤 슈스터, 1994년), 218쪽
14. 더블류 바인과 비 파슨즈, "인간의 성적 본능: 그 생물학적 이론에 대한 재검토", 일반적인 정신 의학에 대한 기록 50 (1993년), 228
15. 딘 해머 외 다수, "엑스 염색체 상의 디엔에이 표식과 남성의 성적 본능 사이의 연관성", 과학 261 (1993년 7월 16일):321~27쪽
16. 욕망의 과학, 145~146쪽
17. 더블류 바인, "도전 받는 생물학적 증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1994년 5월호, 50, 55쪽
18. 바인과 파슨즈, "인간의 성적 본능", 236~237쪽
19. 고든 비 힝클리, "경건과 도덕",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48쪽
20. 델린 에이치 옥스에게 보내는 편지, 1994년 9월 3일
21. 델린 에이치 옥스와의 텔레비전 인터뷰, 1986년 12월 3일; 텔레비전에 방송되지 않은 응답: 처치 뉴스, 1987년 2월 14일의 10, 12쪽 "사도가 동성 연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재확인함"에 실린 인용문
22. 고든 비 힝클리, "경건과 도덕",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48쪽